

0. 현대 사조

THEME 1 ' 개화기

1. 개화기 문학

갑오개혁에서 3.1운동까지의 문학.

2. 언문 일치

문장의 용어와 구조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 일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문어체를 버리고, 이른바 구어체 문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한문 혼용체인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의 서문에서 이 주장이 처음 보이며, 이후 신소설 작가들과 최남선, 이광수 등을 거쳐 김동인에 이르러 거의 완성된 것으로 평가한다.

3. 개화기 문학의 의의

고대 문학과 근대 문학의 교량적 구실을 하게 된 과도기 문학

THEME 1-1 ' 개화 가사

1. 개화 가사의 개념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 고대 가사의 전통적인 율조인 3.4조 또는 4.4조의 리듬에다가 새로운 개화사상을 담은 시가

2. 개화 가사의 두 가지 형태

- ① 전통적 시가 형태인 4.4조 4음보 연속체
- ② 분석되어 있으며, 가창에 맞도록 후렴구가 붙어 있는 형태

3. 개화 가사의 특징

- ① 분절체로 되어 있으며, 가창에 알맞도록 후렴구 등이 붙어 있다.
- ② 국문으로 표기되었으나, 한자어가 많다.
- ③ 전통적 시가 형태의 장편 시가로 되어 있다.
- ④ 개화에 대한 의욕을 담고 있다.

4. 개화 가사의 성격 (교술 갈래)

개화 가사는 문학적 서정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당시 신문의 시사평, 신문의 가십난에 들어갈 기사까지 4.4조의 가사 형식으로 썼다.

THEME 1-2 ' 창가

1. 창가의 개념

개화 가사에 기원을 두고 찬송가 및 일본 음악의 영향 아래 새로운 시가 형태를 취한 시.

2. 창가의 형식

- ① 초기: 주로 가사체의 4.4조
- ② 후기: 7.5조, 8.5조, 6.5조

3. 창가의 내용

- ① 신학문, 신교육
- ② 애국, 독립 사상
- ③ 시대 비판 및 망국의 한
- ④ 후기에는 개인의 서정 표현

THEME 1-3 ' 신체시

1. 신체시의 개념

갑오개혁 이후 창가의 정형적인 율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율조 속에 근대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시. 신시(新詩)라고도 한다.

2. 신체시의 형식

부분적으로 7.5조, 3.4.5조

3. 신체시의 내용

- ① 개화 의식
- ② 자주 독립과 민족정신
- ③ 신교육
- ④ 남녀평등

THEME 1-4 ' 신소설

1. 신소설의 개념

고전 소설에 대하여 개화기 때 새로운 내용과 형식, 문체로 이루어진 소설

2. 신소설의 특징

- ① 고대 소설의 운문체를 극복한 산문체 도입(언문 일치체)
- ② 고대 소설의 공식적 전개에서 벗어나 장면적 묘사 도입
- ③ 시간이나 사건, 장면의 역전적 구성
- ④ 현실에서의 취재
- ⑤ 현실 비판의 작가 의식

3. 신소설의 한계

- ① 인물의 전형성
- ② 우연성의 남발
- ③ 권선징악적 요소
- ④ 민족 주체 의식 결여

4. 신소설의 의의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잇는 과도기적 역할 수행

THEME 2 ' 1910년대

1. 1910년대 문학의 경향

- ① 계몽주의적 경향: 최남선과 이광수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문학이 문단을 주도했다.
- ② 서구 문예 이론의 소개: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 근대적인 문학에 자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태서문예신보> 등을 통해 서양의 다양한 문예 사조가 소개되었다.
- ③ 근대적 문학의 정립: 소설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고뇌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시에서는 김억, 주요한 등을 중심으로 서정시의 모델이 정립되었다.
- ④ 본격적인 문학 동인지의 출현: 2인 문단 시대에서 다수 동인지 시대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 한국 현대시의 전형

- ① 형태상 - 자유시
- ② 내용상 - 서정시
- ③ 문예 사조상 - 낭만주의 시
- ④ 표현상 - 상징시

THEME 3 ' 192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3.1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다.
- ② 3.1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좌절감과 더불어 패배 의식, 정신적 방황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세계적 경제 공황 등으로 인하여 생존 자체가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국내 외의 독립 운동이 활성화되는 한편, '문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일제의 유희 정책에 따라 많은 신문, 잡지가 쏟아져 나왔다.

2. 카프(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문예 운동 단체로 1925년 8월에 조직하였다. 주로 정치 투쟁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였다.

1920년대 초부터 공산주의 사상의 수용으로 인한 신경향파 문학 운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다가 카프(KAPF :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결성과 함께 조직적인 계급 문학 운

동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문학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민족성을 부인하는 카프의 경향은 반빨을 불러일으켰고 국민 문학과와의 사이에 심한 대립 현상을 보였다.

3. 신경향파 문학

1920년대 초 사회주의적 정치성을 띤 문학으로서, 하층민의 빈궁을 소재로 계급의식을 내세운 문학을 말한다. 김기진, 박영희, 최학송 등에 의해 <개벽>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현실 생활, 특히 빈궁을 주로 표현하는 반항적이고 관념적인 계급의식의 문학으로, 프로 문학의 전신이 된다.

4. '국민 문학'의 구체적 전개 양상

- ① 시: 시조 부흥 운동
- ② 소설: 역사 소설의 활성화
- ③ 수필: 국토 예찬의 기행 수필

5. 1920년대 시의 특징

- ① 자유시 운동의 심화
- ② 낭만주의적 감상과 극복의 과정
- ③ 한국적 정서의 탐구와 전통의 계승
- ④ 경향시의 등장

6. 한국의 낭만주의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낭만주의가 대두하였다. 동인지 <백조>를 중심으로 홍사용, 박종화, 이상화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 도덕과 인습에 반발하면서 개인의 가능성과 창조적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은 낭만적 정열보다는 낭만적 허무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프로 문학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7. 시조 부흥 운동

KAPF의 계급 문학에 대하여 최남선, 이광수가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문학 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한 현대 시조 창작 운동을 말한다. 이병기와 이은상은 한국의 언어적 특성과 민족적 리듬이 나타나는 단시로서의 시조가 가지는 중요성과 부활의 타당성을 강조하였고, 연시조나 구별 배행 시조 등 새로운 시조를 선보였다.

8. 한국의 사실주의

사실주의란, 일반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재현하는 창작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계몽 문학에 이어 일본을 거친 사실주의, 자연주의 사상이 유입된 이후부터이다. 특히 1919년의 3.1 운동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진 시대 상황은 사실주의 문학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김동인, 전영택이 처음으로 사실주의적 경향을 드러냈으며, 염상섭, 현진건 등도 사실주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을 썼다. 특히 1925년 이후의 신

0. 현대 사조

경향파 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특징지어지며, 1930년대에는 김유정의 토착적 사실주의와 이상의 심리적 리얼리즘이 대두하였다.

★ 대표 작품 (밝은 정서, 희망)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
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이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
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THEME 4' 193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시기
- ② 1928년에 발효한 치안 유지법에 기초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사상 탄압을 더욱 심화하였다.
- ③ 한국을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 ④ 극심한 위기감 때문에 한국 문학 역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 ⑤ 신간회의 해체(1932), 카프 소속 문인들의 대대적인 검거(1931, 1934)와 뒤따른 카프 해산(1935)으로 문학 운동의 조직적인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2. 1930년대 문학의 경향

- ① 순수 문학의 지향: 예술적 가치의 중시, 목적 문학의 퇴조, 문학의 탈정치화
- ② 현대적 문학의 시도: 모더니즘 운동, 초현실주의 → 현대적인 기교와 기법
- ③ 소극적 저항 의식의 표현: 농촌 현실에 관심, 풍자적 기법 등을 통한 일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

3. 1930년대 시의 특징

- ① 시문학파의 등장
- ② 모더니즘 운동의 전개
- ③ 생명파의 등장
- ④ 전원시의 흐름
- ⑤ 여류 시인의 본격적인 등장
- ⑥ 현대 시조의 지속적 발전

4. 시문학파

카프에 반발하여 문학에서 정치성이나 사상을 배제하고 1930년에 창간한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 서정시를 지향한 시인들을 말한다. 박용철, 김영랑과 정인보, 변영로, 이하운, 정지용이 참여하였고, 뒤늦게 김현구, 신석정, 허보가 참여하여 순수시 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등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에 의한 자유시를 썼으며, 특히 시는 언어 예술임을 내세워 언어의 조탁에 힘쓴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5. 한국의 모더니즘

1920년대에 일어난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을 말한다. 한국 문학에서는 1931년경 프로 문학의 퇴장과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의 대두를 계기로 나타났으며, 일명 주지주의라고 일컬었다. 김기림이 시의 낭만주의적 요소를 배격하고 시작 자체의 의식성을 강조하는 시의 기술주의를 주장하면서 형태화 하였다. 김기림은 모더니즘 시운동을 벌였는데, 모더니즘의 특징은 정서적 우세에서 지성적 우세로, 현실

에 대한 초월적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 적극성을, 청각적 요소에 대하여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소설에서는 1934년 최재서가 주지주의 문학을 소개하고, 실제로 이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심리주의적 경향을 비평하면서 전개되었다.

5. 생명파

순수시를 표방한 <시문학>의 유희주의적 경향과 관념성, 그리고 모더니즘의 감각적 기교주의와 반생명성에 반발하여 등장한 일군의 시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시인 부락>의 동인으로 활동한 서정주를 중심으로 하여 오장환 등을 생명파의 중심 시인으로 꼽고, 휴머니즘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소설가 김동리도 생명파의 일원으로 꼽힌다. 그 외에 윤근강, 신석초, 유치환도 생명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시문학>의 예술 지향주의적인 경향을 이어받으면서도 생명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이를 좀더 인간주의적인 것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6. 목가

전원시의 한 장르. 본래는 서정시의 한 형식으로, 공상적인 황금 시대를 동경하고 평화롭고 소박한 전원생활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소치기, 양치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목자 문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7. 풍자 문학의 본질

통제가 심한 사회의 문학은 그 존립을 위해 통제를 따르면서 동시에 그 통제를 넘어서는 모순을 문학적 표현 속으로 내재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풍자'의 본질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풍자 문학은 정치적 후퇴에 대한 문학적 보상인 것이다.

8. 세대 소설

사회적인 풍속이나 습관 또는 사회 내의 어떤 집단이나 계층의 세태를 묘사하는 소설로서 박태원의 '천변 풍경'이 대표적이다.

9. 인생파 소설

생활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인생을 방관하거나 관조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소설을 말한다.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대신 그 삶을 예술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계몽록, 조용만 등이 대표적이다.

10. 의식의 흐름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의식의 연속성을 강조한 말.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용어로, 조이스, 울프, 포크너 등의 소설가가 내면 묘사를 위한 실험적 방법으로 응용하였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처음 사용되어 이후 발표된 많은 심리주의 소설이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 대표 작품 (순수시 운동 - 시문학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머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대표 작품 (생명 의식)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를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띄여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험뻑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

0. 현대 사조

THEME 5 ' 194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민족 말살 정책 추진,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 등을 강요, 한국어 사용을 금지
- ②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우리말을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였으며, '진단학회'를 해산함으로써 국한 연구의 마지막 거점을 파괴하고, 한국의 문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는 갖가지 책동도 본격화하였다.

2. 1940년대의 문학의 경향

- ① 민족적 전통의 모색: 1930년대 흐름의 계승
- ② 저항 문학의 전개: 한용운, 이육사, 운동주
- ③ 허무적, 절망적 문학: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

★ 대표 작품 (저항 시인)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대표 작품 (저항 시인)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 이육사, <교목>

THEME 6 ' 광복 직후

1. 시대적 배경

- ①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 ② 국토가 분단되고 좌우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기 극심하였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2. 광복 직후의 문학적 경향

- ① 고향 회귀의 문제
- ② 식민지적 한계의 극복
- ③ 민족적 정서 노래

3. 광복 직후 시의 양상

- ① 민족적 정서의 탐색: 민족주의적 경향
- ② 자연파(청록파) 시인의 대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청록집> 발간
- ③ 인생파적 경향의 시집 출간: 생명파 시인들의 부활
- ④ 유고 시집의 출간: 운동주, 이육사
- ⑤ 모더니즘의 계승: 김경린, 박인환, 김수영 등

4. 자연파

<문장>지를 통해 등단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등은 동양적인 자연 세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서정과 울격을 지닌 시들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시는 김상용 등의 전원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 말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지절을 지킴으로써 운동주와 함께 광복 이전의 시단을 마지막으로 장식하였고, 고아복 이후 <청록집>(1946)을 발간함으로써 암흑기를 조명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복 후 우리 시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후반기' 동인과 모더니즘

김경린, 박인환, 김규동, 조향, 김수영 등은 시의 소재를 현대 도시 문명에서 찾고, 이를 주지적이고 감각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김기림이 19세기적 감상과 우울을 반대하면서 밝고 건강한 '오전의 시'를 쓸 것을 주장한 데 비하여 '후반기' 동인들의 시는 짙은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6. 광복 직후 소설의 양상

- ① 식민지적 유산의 극복을 위한 노력: 사회의 혼란상에 대한 비판
- ② 시대적 현실의 반영: 귀향, 분단 문제
- ③ 순수 문학의 지향: 본격 순수 소설 → 김동리, 황순원

★ 대표 작품 (청록파)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1〉

THEME 7 ' 195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 ②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고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 ③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국토의 분단은 계속되었고,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급증과 경제적 시련이 지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2. 1950년대 시의 양상

- ① 중군 시인: 유치환, 조지훈, 김종문 등
- ② 후기 모더니즘 시: 박인환, 김수영 등
- ③ 전통주의: 서정주, 박재삼, 김상옥 등
- ④ 순수시: 유치환, 박목월, 박두진 등
- ⑤ 현실 참여: 김수영, 전봉건 등

3. 전후 모더니즘

8.15 광복 직후와 6.25를 거친 후에 나타난 우리 시의 경향 중의 하나로서 1930년대 모더니즘을 계승하여 도시와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토대로 하고 서구로부터 도입된 새로운 사조와 방법을 실험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말한다. 박인환, 김경린, 김수영 등이 중심이 된 '후반기' 동인들은 전후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광복과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의 뼈아픈 체험과 혼란, 불안, 상실감과 허무를 특징으로 하는 전후 시대의 분위기를 주로 노래하였다. 특히 전쟁 직후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허무주의적인 풍조가 서구로 유입된 실존주의의 영향과 결합하면서 모더니즘 시의 이러한 특징은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도시적 감성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지적 조작, 낯선 어휘와 사물의 제시 등 새로운 창작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4. 전후 소설의 대표적인 유형

- ① 전쟁을 배경이나 소재로 한 소설: 황순원의 〈학〉,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등
- ②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한 소설: 안수길의 〈제 3인간형〉, 하근찬의 〈수난시대〉 등
- ③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소설: 이범선의 〈오발탄〉, 박경리의 〈불신 시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등

5. 실존주의 문학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부조리로 보고, 본질보다 구체적 실존을 중시하려는 사상이 실존주의이다. 기독교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행동적 실존주의가 있다. 이는 사르트르, 카뮈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사조는 1950년대 전후의 한국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0. 현대 사조

★ 대표 작품 (전쟁)

하꼬방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리쬐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터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THEME 8 ' 196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4.19혁명과 5.16 군사 정변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 ② 4.19혁명은 시민에 의한 것으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한 반면, 5.16 군사 정변은 산업화와 근대화 및 그 이면의 억압적 사회상을 상징한다.

2. 1960년대의 문학적 양상

- ① 1950년대 문학의 계승과 발전
- ② 사회 현실에 대한 참여 확대
- ③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논쟁

3. 1960년대 시의 양상

- ① 계승 - 한국시의 전통적 서정주의를 계승하는 경향: 서정주, 박재삼
- ② 확대 - 현실 참여시 내지 민중시의 가능성을 추구, 확대하는 경향: 신동엽, 김수영
- ③ 실험 - 새로운 언어 기교를 실험하는 경향: 김종삼, 황동규

4. 1960년대 모더니즘

1960년대는 모더니즘의 토대가 되는 근대 문명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기였다. 즉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질서의 급격한 붕괴와 농촌 공동체의 해체,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기계 문명의 발달 등의 사회, 경제적 바탕 위에서 모더니즘 시는 비로소 관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산업 사회에서의 인간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시적 관심은 황동규, 정현중, 오규원, 이승훈 등과 같은 1960년대 이후의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좀더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언어와 형식에 대한 실험을 추구하여 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시의 미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5. 1960년대 소설의 양상

- ① 전쟁의 상흔: 황순원, 최인훈
- ② 현실에 대한 비판: 김정한, 전광용, 이호철
- ③ 역사에 대한 반성: 안수길
- ④ 내성적 기교주의: 김승옥, 강신재, 이청준
- ⑤ 한국적 서정주의: 김동리, 오영수

★ 대표 작품 (참여 의지)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레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THEME 9 ' 1970년대

1. 시대적 배경

- ① 1970년대는 군사 독재 정권이 택한 개발 독재 전략에 따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다.
- ②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일체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었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 ③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 1970년대의 사회

- ① 유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 암흑기
- ②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의 부조화 현상 만연

3. 1970년대 이후의 문학적 양상

- ① 사회 현실에 대한 참여 확대: 민중 문학 → 현장 문학
- ② 모더니즘의 발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개성 · 자율성 · 다양성 ·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이라는 이 시대 정치이론을 낳는다.)

1.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3분 30초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2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2. 다음을 읽고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를 표시하라.

- ①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②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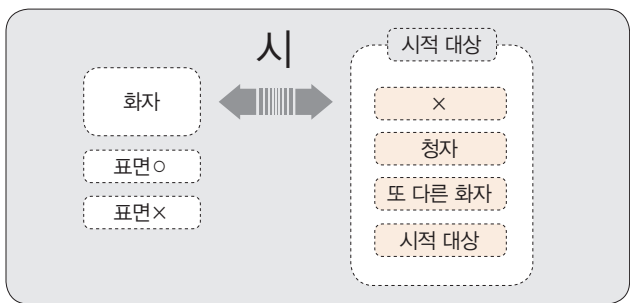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②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STEP 2' 작품 공부하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 물의 이미지
△: 불의 이미지

1연: 화자는 물이 되어 만나고 싶어 한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2연: 화자는 물이 되어 바다에 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3연: 화자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 하늘로 오라.

4연: 화자는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
이상적 공간에 가고 싶어 한다.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조화와 합일을 소망, 이상 세계를 추구
2. 특징:
 - ① 가정법이 나타나 있다. (예 만난다면, 흐른다면 등)
 - ② 청유형이 나타나 있다. (예 만나자)
 - ③ 설의법이 나타나 있다. (예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 ④ 명령법이 나타나 있다. (예 오라.)
 - ⑤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다. (예 우르르 우르르)
 - ⑥ 청자가 나타나 있다. (예 그대여)
 - ⑦ '물'과 '불'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 ⑧ '물'은 생명력, 정화, 상생의 이미지를 지닌다.
 - ⑨ '불'은 파괴와 소멸의 존재로 물과 대립된다.
 - ⑩ '저 혼자 깊어지는'에서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⑪ '죽은 나무 뿌리'에서 황폐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⑫ '바다'와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화자(표면 ○), 시적 대상(청자=그대여)
2. ① ○, ② ○
 - ① ○, '하늘'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화자는 '그대'와 만나 이곳에 가고 싶어 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② ○, 화자는 가정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그대와의 만남, 이상적 공간에 가고 싶은 바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②
표면적으로 '물'과 '불'은 대비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 오답피하기**
- ①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에서 만남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구절의 의미는 '반드시 좋아할 것이다.'이다.
 - ④ '그대여'에서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만나자'라는 말에서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에서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다.

4. ④
해당 작품에서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①의 '우르르 우르르'는 물의 생동감이 있는 힘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③은 '푸시시 푸시시' 불이 꺼지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불이 소멸하는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물'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③ 불은 '총족감'과 관련이 없다.
 - ② 비는 '물'의 긍정적 모습을 보여준다.
 - ③ 비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 ⑤ 비는 하강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1. 김동리, <역마>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8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4분
3. 문제를 푸는 시간: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에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㉔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땀구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잤다는 자기의 아버지입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㉕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은 쪽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㉖땀구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뿔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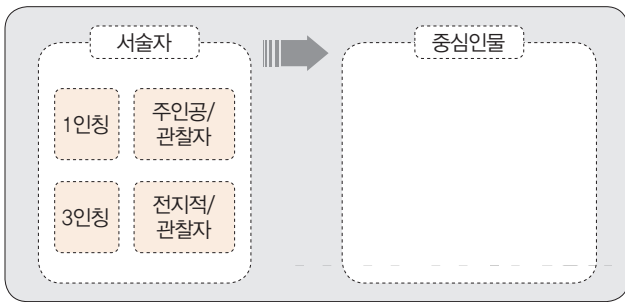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
통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
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
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
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향라 적삼: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옷도리.
- * 통정: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 명도: माम을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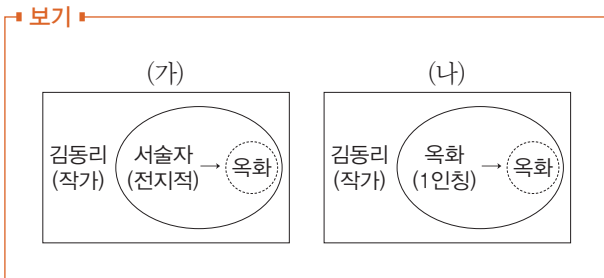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3.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 ㉢와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포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ㄱ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1. 김동리, <역마>

STEP 2' 작품 공부하기

[앞부분 줄거리]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하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쌍계사로 보내고 장날만 집에 오게 한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나타난다. 성기가 계연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화는 장차 둘을 결혼시켜 역마살을 극복하고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러나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귀에 난 사마귀를 발견한다. 자신의 동생이 아널가 의 심하던 중,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서 사실로 밝혀진다. 계연과 성기의 사랑은 좌절되고 계연은 떠나려 한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진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겟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 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되려다나 보는 드키 재줄 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대로 해라.” /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빠꾸기는 또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뺑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 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 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레,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레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레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
렵 하여서는, 옥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
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驛馬)>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

2.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 특징:

- ① 운명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 있다.
- ② 역마살이라는 동양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③ 향토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 ④ '화개장터'를 공간으로 하고 있다.
- ⑤ '옥화'는 '성기'의 어머니이다.
- ⑥ '성기'는 '옥화'의 아들이다.
- ⑦ '체 장수 영감'은 '계연'의 아버지이다.
- ⑧ '체 장수 영감'은 '옥화'의 아버지이다.
- ⑨ '계연'과 '옥화'는 자매 시간이다.
- ⑩ '성기'와 '계연'은 조카와 이모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
렵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심인물(옥화, 성기)

2. ①

'과거 장면'이란 현재보다 이전에 벌어진 일을 말한다. 서술 부분에서 '그 해 아
직 봄이 오기 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에서는 "나도 처음부터~
망신을 했지."에서는 체 장수 영감과 옥화, 그리고 계연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동시'에 벌어지면 병렬적 구성이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같은 배경을 연
속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의식의 흐름'이란 비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내용
은 옥화와 성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④ '상상적 공간'과 '허구성'의 연결이 맞으려면 '비현실적 공간'이 드러나야 하
는데, 해당 내용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⑤ '독백'을 직접 인용하려면 적어도 작은따옴표로 인용되거나 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 ②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나)는 1인칭 시점이다. 따라서 ①을 (나)의 시점
으로 바꾸게 되면 먼저 '어미'를 '나'라고 바꾸어야 하며, '옥화 자신'도 역시 '나'
라고 바꾸어야 한다. 즉, '옥화'는 '나'로 고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아들의 뼈'는 여전히 옥화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나를, 아들의'가 있는 ②가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나의 뼈'가 아니라 '아들의 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옥화'는 '나'가 아니라 '나는'으로 고쳐야 한다.
- ④ '나의 뼈'가 아니라 '아들의 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엄마'가 아니라 '나'이며, '나의 뼈'가 아니라 '아들의 뼈'로 고쳐야 한다.

4. ③

⑥의 '유달리 맑게 갠'이란 표현은 '햇빛'과 연결되어 분위기를 기분 좋게 바꾸
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가장 적절하다. 더구나 성기의 절망적 심정도 ⑥
이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알아두자.

오답피하기

- ① '인물의 성격'과 해당 분위기는 관련성이 적다. ⑥의 '고운 햇빛'은 '저만치
가고 있는 향과 적삼'으로 표현된 계연과 연결되는데, 이 모습에서 안타까운
성기의 시선을 읽을 수 있을 뿐, 성격을 확인할 수는 없다.
- ② ⑥의 '거의 울음이 다 된' 계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뼈꾸기 울
음'과 어우러져 슬픈 분위기를 드러낸다. 따라서 '대조'를 이룬다고 말하기
어렵고, '비극성 약화'도 해당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 ④ ⑥의 '뼈꾸기'와 '화개 장터'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해석하기 어렵다. 해
당 작품이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⑤ ⑥의 '또다시',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 '늘어진 버들가지'란 작품의 배경
은 성기의 내적 갈등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니,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해당 부분은 갈등이 해소되는 부
분이기 때문이다.

5. ③

<보기>의 조건을 보고 분석해야 한다. ㄱ은 김동리 <역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세계와 조화되는 것, 그리고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
라 서술하고 있다. ㄴ은 <역마>의 인물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연결된다.

정답은 ③인데, 이유는 현대인이 주체적 존재이고,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은 현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 선지는 잘
못되어 있다. '주체적인 인물'을 '성기를 떠난 계연'으로 본다면, 현대인들의 공
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 ㄱ에 따르면, 해당 삶의 방식이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했으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 ② ㄱ에 따르면, 인물들의 행동은 전통적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까지 판단할 수 있다.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의 행동은 '비
합리적인 인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이미 ㄴ의 조건에 따라
적극적이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소극적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로 해석
할 수 있다.